

국가보훈대상자만을 위한 새로운 신분증!

# 이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바꾸세요

종전 15종의 보훈신분증은 2028년 6월 4일까지만 사용가능



실물



모바일

- 금융업무
- 병·의원등방문
- 인감증명서 발급
- 국내선 항공기 탑승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시험응시(공무원 임용, 공인 외국어)

### 교체 대상

종전 15종의 보훈신분증 소지자 (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등)

종전 보훈신분증 15종  
독립유공자증·유족증,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보훈대상자증·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지원대상자, 국내고령제, 고령제2제), 5·18민주유공자증·유족증, 특수임무유공자증·유족증, 제대군인증(장기·중기)

### 준비물

- 사진 1매(3.5cm×4.5cm 크기)  
※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 사진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종전 보훈신분증(반납 필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전국 27개 보훈(지)청 방문 신청 시 즉시 발급
- 온라인신청: 정부24 또는 나만의 예우 홈페이지 접속 신청  
- 수령 시 본인 직접 보훈(지)청 방문 필요



정부 24



국가보훈부 나만의 예우

대리발급 신청: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불필요

궁금하신 사항은 ☎ 1577-0606 으로 문의

# 리:스펙 제대군인

2025 February Vol.228



전해춘  
예비역 육군 원사

## Re play

특전사에서 점프, 사회복지관에 착지

## Re connect

창업의 꿈이 현실이 되다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정책

## Re new

CES 2025에서 본  
3가지 포커스



QR코드를 통해 리:스펙 제대군인 웹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YouTube 바로가기

리:스펙 제대군인 2025 February Vol.228



# Contents



## 리:스펙 제대군인

2025 February Vol.228



06



10



34

### Re play

- 04 **리마인드**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은 [ ]이다.
- 06 **지금 우리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 프로바이더 (썬어빌리티시스템즈)
- 10 **인사이드 스토리**  
특전사에서 점프, 사회복지관에 착지. 군을 빛내던 열정, 복지관에서 꽃피다! 전해준 예비역 육군 원사
- 14 **위대한 전환**  
슬픔의 눈물이 행복의 눈물로 되기까지 이창규 예비역 육군 소령

### Re connect

- 18 **커리어 맵**  
2025년 제대군인 전직활동 지원
- 20 **스페셜 리스트**  
창업의 꿈이 현실이 되다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정책 모아보기
- 24 **금빛 상담소**  
머릿속 생각, 어떻게 글로 표현할까요? 박지연 작가
- 26 **지식 산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로 보는 역사와 보훈 지식 신간회와 이상재
- 28 **미디어 로그**  
담장 안 수형자와 담장 밖 사회의 연결 고리 가석방 심사관 & 교도관

### Re new

- 32 **전문가 칼럼**  
CES 2025에서 본 3가지 포커스 이임복 작가
- 34 **뜻있는 여정**  
훈련소로 가는 길, 눈물 거두니 아름다움과 역사가 보인다 충남 논산
- 38 **센터는 지금**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 42 **독자 광장**  
졸업생을 위한 추천 도서, 한 달에 한 가지, 지구 사랑 실천 플로깅

# 02

통권 228호

발행일 2025년 2월 5일

발행처 국가보훈부

발행인 강정애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기획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일자리과(044-202-5731)

발간등록번호 11-1830000-000002-06



[www.facebook.com/mpvakorea](http://www.facebook.com/mpvakorea)



[www.youtube.com/user/mpvakorea](http://www.youtube.com/user/mpvakorea)



[www.instagram.com/bohun\\_story](http://www.instagram.com/bohun_story)



[x.com/hun2day](https://x.com/hun2day)



[blog.naver.com/mpvalove](http://blog.naver.com/mpvalove)



QR코드를 통해 <리:스펙 제대군인> 웹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리:스펙 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http://www.mpva.go.kr)),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http://www.vnet.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은 [            ] 이다.

‘인생을 발전시키는 것은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다.’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로버트 브라우닝의 말입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어떤 뜻을 품고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여러분의 삶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최근 도파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파민은 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학물질 중 하나로, 기분이 좋을 때 더 많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원하는 일을 향해 갈 때 더 긍정적인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지 않는다고 주저하거나 원망만 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조금 돌아갈 순 있겠지만, 방향을 돌린다면 원하는 방향이 머지않아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새롭게 시작한 2025년의 두 번째 달, 방향을 설정했다면 이제 힘차게 걸어가 볼까요?



고객 맞춤형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 프로바이더

## (주)어빌리티시스템즈



네트워크 통합(NI)과 시스템 통합(SI)을 시작으로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등 다양한 최신 기술 분야로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토털 IT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 있다. 지난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주)어빌리티시스템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기업에서 제대군인들의 꿈도 함께 영글어 간다.

글 박선경 사진 권진혁

### 20년간 성장해 온 IT 서비스 전문 기업

(주)어빌리티시스템즈는 2004년 설립된 IT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신재일 대표이사과 직원 1명으로 시작해 20년간 꾸준히 성장해 온 저력의 기업이다. 초기에는 시스템 통합(SI) 및 네트워크 통합(NI)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에 안착한 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등 다양한 최신 기술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Total IT Solution Provider로 자리 잡았다. 현재 서울 본사와 세종시, 경기도 과천 등 2개 지사 포함 150여 명의 직원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뜻을 모으고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 다양한 고객에게 SI 사업과 솔루션,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 맞춤형 솔루션과 서비스 제공으로 승승장구**

디지털 전환(DX)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빌리티시스템즈는 고객 맞춤형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강점을 가진 기업으로 통한다. 디지털 전환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고객들의 요구는 점점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빌리티시스템즈는 20년간 쌓은 고객 친화 프로젝트 경험을 토대로 고객 요구에 맞는 DX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경쟁력을 발휘해 왔다.

실례로 2018년 정보보호 장비 도입 및 교체 사업을 시작으로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이하 DIDC)의 주요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2년에는 '차세대 지능형 소프트웨어정의데이터센터(SDDC) 기반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을 진행했다. 또 2024년에는 국방 행정 분야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사업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15년 메르스 감염병 확산 당시, 감염병관리 통합정보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병원 신고 기반의 감염 환자 감시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대량발생 및 집단 발생 대응을 위한 긴급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 이후 3년간 운영으로 국가 감염병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처럼 어빌리티시스템즈의 저력은 안정적인 성장의 토대

가 되면서 창업 첫 해 1억 5천만 원이던 매출은 2022년 매출 500억 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600억 원의 매출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물류 모빌리티 시장 안착을 위한 도전과 성공**

어빌리티시스템즈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물류 모빌리티 시장이다. 2023년 자동차융합기술원이 발주한 LV3+ 자율상용차 납품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해양수산부의 '수출입 자율주행차량 자동화역지원 시스템 기술 개발' 3단계 사업에 교통연구원(주관기관) 등과 함께 참여해 시연까지 마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를 토대로 항만 자율화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자율주행 야드 트럭 개발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자율시스템을 통해 항만과 선박 간 물류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4월 국내 모터쇼 출품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세계최대 모터쇼인 라스베이거스 모터쇼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일 대표이사는 "시스템 통합(SI), 업무 개발, M-BcN 운용 유지 사업 외 자율주행, AI, IoT 사업에 집중해 지속 성장을 영위하는 것은 물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제품을 먼저 갖추고 제시하는 방식으로 고객이 자연스럽게 어빌리티시스템즈의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I N T E R V I E W

**제대군인과 함께 성장하는 (주)어빌리티시스템즈**

**“제대군인지원센터와 상생을 통해 좋은 인재를 영입할 계획입니다”**

2022년 국방상호운용성센터(DIDC) 추진사업, M-BcN(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 및 운용 사업에 진출하면서부터 군 출신들을 다수 채용해 업무에 투입해 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 모두 군에 대한 이해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사업으로, 군 정보통신군무 유경험자를 채용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를 거양했고, 발주처로부터 좋은 평가와 함께 추가 사업을 수주하는 데도 일조했습니다.

개인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제대군인들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 능력, 주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뛰어난 협업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0대부터 60대 초반까지 다양한 연령, 다양한 직무의 군 경력자 12명이 근무 중인데, 향후에도 제대군인지원센터와 상생을 통해 다양한 직무에 더 좋은 인재를 영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재일**  
(주)어빌리티시스템즈 대표이사

**“책임감, 리더십 등 제대군인만의 강점에 직무 관련 자격증까지 있다면 유리해요”**

제대군인 동료들의 강점은 조직에 대한 충성도와 책임감이 남다른 것입니다. 군이라는 조직에서 오래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회사라는 조직에서도 맡은 바 업무를 끝까지 충실히 처리하고, 군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통솔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선배들과 하나의 조직으로 녹이고, 녹아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업무를 끝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끈기와 추진력은 제대군인만이 가진 특화된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제대군인들에게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강점을 살리면서 복무 시에 담당했던 직무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를 활용해 직무와 관련된 회사의 이력서에 포함하면 서류 심사 통과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군에서 지휘 통솔했던 경험을 '팀을 관리했다'라는 표현 대신 '10명 이상의 팀원을 관리하며 일정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조율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혜민**  
IT사업본부  
사업지원팀 부장

**“관련 분야 공부와 자격증 취득으로 전직지원교육기간 중 취업의 꿈 이뤘어요”**

경기도 양주 72사단에서 10년간 복무하고 2024년 9월 1일부터 전직지원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를 고민하며 산업안전기사, 정보처리기사, 지게차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등을 틈틈이 취득해 두었고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공부도 꾸준히 해 왔습니다. 또 국방전직교육원에서 받은 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이력서 작성 방법, 면접 등을 통해 취업의 문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취업박람회에서 어빌리티시스템즈 면접을 보고 10월 14일자로 전역 전에 선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취업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이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준비하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또 군 경력은 사회에서도 매우 큰 자산이니 잘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직무 수행을 위한 공부와 자격증 취득 등 끊임없는 노력으로 M-BcN(국방광대역통합망) 유지보수 분야 전문가를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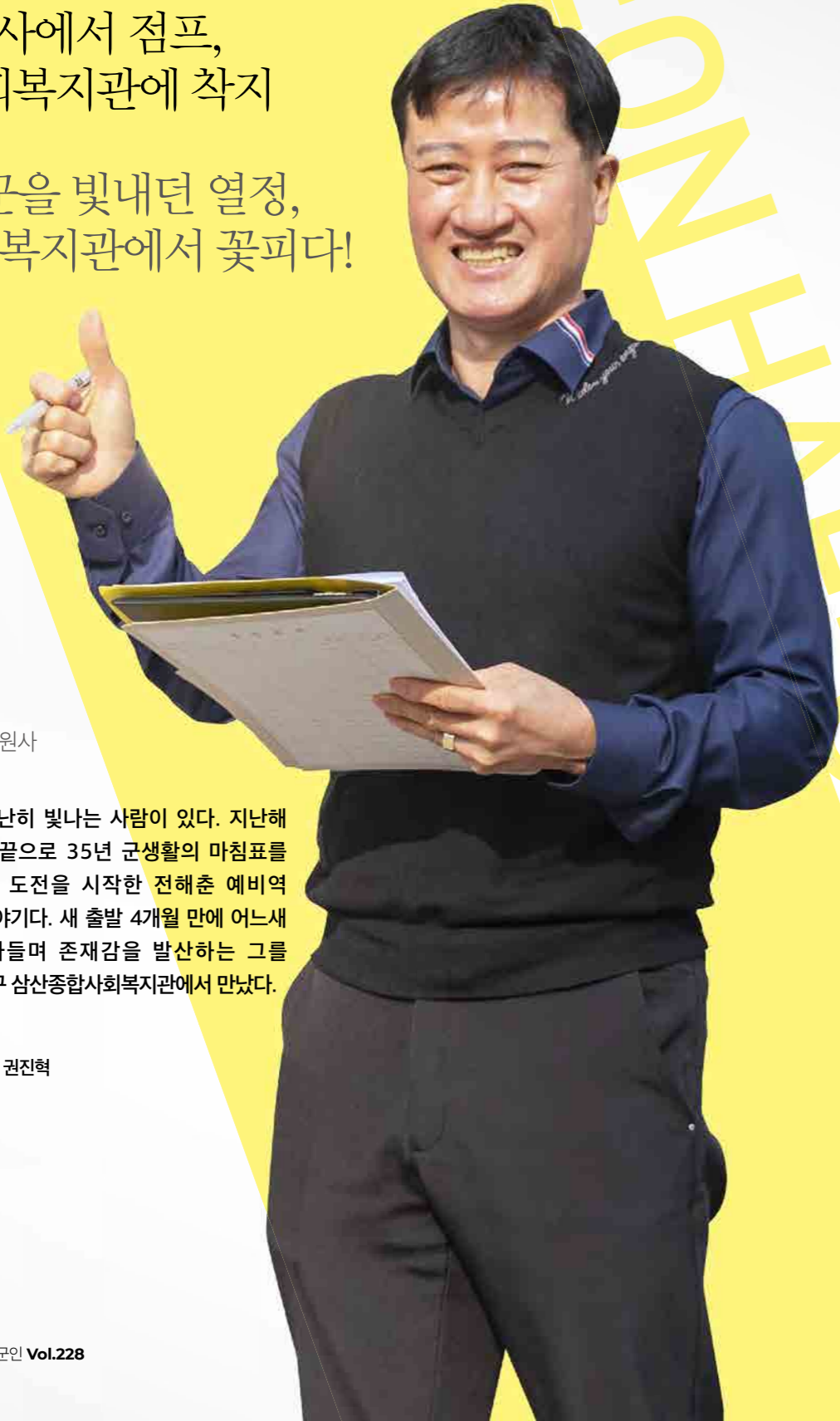


**최태환**  
전략기획실 대리



## 특전사에서 점프, 사회복지관에 착지

### 군을 빛내던 열정, 복지관에서 꽃피다!



**전해춘**  
예비역 육군 원사

어디서든 유난히 빛나는 사람이 있다. 지난해 주임원사를 끝으로 35년 군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제2의 도전을 시작한 전해춘 예비역 육군원사 이야기다. 새 출발 4개월 만에 어느새 자리에 녹아들며 존재감을 발산하는 그를 인천시 부평구 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만났다.

글 박선경 사진 권진혁

#### 만능 스포츠맨, 특전사에서 꿈을 펼치다

경북 경산 자인이 고향인 전해춘 씨는 어릴 적부터 동네에서 알아주는 스포츠맨이었다. 날렵한 몸놀림,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어떤 운동이든 두각을 나타냈다. 그런 그가 육군 특전사에 자원입대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1989년 7월 18일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특전사에 입대한 이후 2024년 8월 31일 명예롭게 전역하기까지 35년간 주요 보직을 거쳤다. 특히 대대주임원사, UAE 13진 주임원사, 동명부대 23진 주임원사, 단주임원사 등 네 차례의 주임원사 임무를 수행하며 특전사의 중추적 역할을 해냈다.

그의 탁월한 임무 수행 능력은 9년 동안 선임하사를 하며 (30대) 전술 최우수 중대, 방항탐지 최우수 중대 등 수차례 전투력 최고의 중대로 선정되는 데 기여했다. 여기서 나아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참모총장, 서울시장, 철도공무원 원장, 한강유역청장 표창, 상장, 감사장 등 58회 수상으로 이어졌고, 이를 토대로 국가유공자에도 선정되는 등 자타공인 인정받는 군인으로 명성을 떨쳤다.



## Jeon Hae-chun

#### '한 번에 척척' 임무 완수하며 두각을 나타내다

입대 초반, 군 생활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의무복무 4년만 채우고 전역하겠다는 생각으로 견뎠다. 하지만 태권도(3단), 특공무술(3단), 인명구조, J/M, 해상 척후조, 열차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받으며 생각이 달라졌다. 무엇이든 한 번에 척척 해내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는 점점 군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키웠다. 그는 매번 반복되는 군 훈련을 단순히 소화하는 것을 넘어 완벽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성장해 나갔다.

“‘이왕 할 거라면 최선을 다해 내 것으로 만들자.’ 이 신조 덕분에 모든 훈련을 한 번에 익히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다른 동기들보다 조금 먼저 상사로 진급하고, 좀 더 빠르게 원사까지 될 수 있었죠.”



**순직한 동료 6인에 대한 추모의 마음**

35년의 군 생활은 아쉬움 없이 마무리했지만, 단 한 가지 아쉬움이 해결하고 싶은 일이 있다. 1998년 민주지산 천리행 군 중 순직한 6인의 전우들에 대한 죄책감은 가슴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이후 모금을 통해 추모비를 세우고 충북 영동군에 안보공원으로 재조성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25년간 매년 추모식에 참석해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보공원이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잘 관리되고 있고, 추모행사도 사령관 주관으로 격상되어 민관군이 함께 진행하는 것은 참 보람된 일입니다. 마지막 바람은 김광석 소령 외에도 순직한 부사관들이 꼭 유공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복지관에서 열정적인 인생 2막을 올린다**

지난해 8월 전역을 앞두고 그는 두려움 대신 희망을 품고 4월부터 인천제대군인지원센터를 찾아 취업 준비에 나섰다. 소방안전 2급 자격증, 자동차 정비 자격증, 대형 견인 면허, 대형 버스 면허, 굴착기 면허, 컴퓨터활용능력 2급 등 150만원의 교육비를 알차게 활용해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처럼 차곡차곡 쌓아온 자격증에다 군 생활 중 복지담당관 업무를 수행한 것이 시너지가 되어 전역 한 달 만인 지난해 9월, 인천 삼산종합사회복지관 안전관리자(시설관리)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시설관리부터 자활근로자 관리, 무료급식소 안전보건교육, 각종 예산 관리, 소방·가스·수도 점검, 승강기 관리, 자판기·정수기 관리 등 그의 손을 거치지 않는 일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군 생활 동안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성실함과 근면함을 몸에 익힌 그였기에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관련 문서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보고, 안 되면 전임자에게 전화해 꼼꼼하게 묻고 확인하며 업무를 파악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복병은 따로 있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인간관계 형성이었다. 나이 어린 동료 직원들과의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사람을 대하는 데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철칙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대하자 어느새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고, 인정받는 동료도 되었다. 복지관 직원들과 이용자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전 선생님 없으면 안 된다. 안 되면 해준 선생님을 불러라.’라고 할 만큼 제대로 녹아들었다. 김혜연 삼산종합복지관 관장 역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스스로 판단해서 잘 하시고 필요한 것은 먼저 제안하고 수행해 주시는 등 중재자이며 감초이자 어른의 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전 선생님 덕분에 제대군인에 대한 인식도 좋아졌어요. 앞으로 정년 때까지 손발 맞춰서 함께 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 가족은 물론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다**

현재 복지관에서 뿌리를 내린 그는 복지관 정년 이후의 삶도 구상 중이다. 체력 유지를 위해 헬스와 스크린골프를 즐기며, 추후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다. 바쁘고 힘든 군 생활 중에도 위탁생으로 인천전문대(야간, 전자계산학과) 졸업 후 부천대학교(IT 비즈니스 융합학과)에 편입해 졸업하는 등 그의 열정은 이미 검증된 바 있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는 어떤 식으로든 기회를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 아직까지는 사회 초년생이라 정보가 부족하지만, 자율소방대원이나 주민센터 도우미 봉사 등 차근차근 옆을 돌아보며 살고 싶다는 의지를 다졌다. 기회가 된다면 선배로서 후배 부사관들에게 멋진 군인의 길을 알려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피력했다. “군 생활을 하는 동안 가족들에게는 소홀했습니다. 작년 3월에야 처음으로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니까요.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데, 앞으로는 맛집도 찾아 다니고 여행도 다니며 가진 범위 내에서 즐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이웃에 봉사하며 나와 내 주변을 돌아보며 전진해 나가고 싶습니다.”



**◆ 제대를 앞둔 후배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

- 1** 체력과 전투력을 유지하라. 훈련은 반복적이다. 체력이 뒷받침되면 여유가 생긴다.
- 2**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라. 연 2회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은 큰 자산이 된다.
- 3** 성실, 근면, 솔선수범 등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라. 군에서도, 사회에서도 성공의 비결이다.
- 4** 자신을 최고의 상품으로 만들어라. 어디서든 활용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 5** 좋은 인연을 소중히 하라.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이다.





# 슬픔의 눈물이 행복의 눈물로 되기까지

2024년 제대군인 취·창업 성공 후기 공모전 우수상

## 이창규 예비역 육군 소령

초등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이 아버지의 직업을 조사하는데 아버지 직업이 군인인 친구가 제일 부러워 군인의 꿈을 가지게 되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육사 시험에 낙방 후 대학에 진학하여 장교의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ROTC 후보생이 되었다.

1999년 3월 1일 5만 촉광에 빛나는 다이아몬드 소위 계급장을 달고 임관을 하면서 나의 군 생활은 시작되었다. 25사단 72연대 보병대대 소대장을 시작으로 수색대대 소대장과 인사장교를 마치고 대위로 진급 후 논산 육군 훈련소에서 1차 중대장을 하였다. 1차 중대장을 마친 후에는 기무사령부 시험에 합격하여 새로운 군 생활을 하게 되었다. 전방 사단 기무반장과 기무사령부 과학수사과에서 반장 생활을 마치고 소령으로 진급 후에는 기무사령부 지역부대에서 방첩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며 나름 탄탄대로의 길을 걸었다. 이후 다시 사령부 방첩처 과학수사 팀장으로 근무하며 각종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수사 지원으로 국방부장관, 국정원장 표창 수상 등 많은 공적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무사령부 1차 중령 진급 심사에서 비선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고, 2차 진급 심사에서도 진급 발표 전에는 진급이 유력하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으나 선발위에서 여러 가지 논리로 같은 특기의 후배에게 밀려 진급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진급에서 비선된 후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며 식탁에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이사와 야근, 주말 출근 등으로 가정에 소홀하면서까지 부대 업무에 매진하였는데 그 결과가 앞으로 몇 년 뒤 전역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공모전 글을 쓰면서도 그 당시 슬픔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눈물을 흘리는 아내에게 지금 당장은 뚜렷이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전역 후 다른 길들도 많으니 잘 준비해서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 강원도 오지에서 제2의 인생 계획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2018년 기무사령부 개혁의 일환으로 부대원을 감축시키면서 각 군으로 원복을 시켰는데 나도 대상이 되어 강원도 화천의 15사단으로 전출 가게 되었다. 15



사단 38연대는 연대본부와 3개 보병대대가 모두 민통선 내에 있어 군의 최고 오지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점차 이제는 보병 부대원으로 적응해 갈 때쯤 별박에 보이지 않는 독신자 숙소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했다. 외부와 단절된 이곳이 내가 전역 준비에만 몰두할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불필요한 감정 소비와 인간관계는 잠시 접어두고 제2의 인생 준비에 전념하기로 말이다.

그리고 전역을 3~4년 앞두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자료수집과 함께 전역준비 계획을 수립하였다. 전역한 선배들과 통화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하였다. 소령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는 시험이 예비군 지휘관 시험이었고, 두 번째가 비상계획관 시험이었다. 경력채용 군무원 시험도 특기만 맞다면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고민 끝에 현역에 있으면서 비상계획관 시험을 응시하고 떨어지게 되면 직보반에 입교하여 예비군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시험 과목이 예비군법만 동일하고 나머지 과목은 다르지만 법령을 공부하는 방법은 비슷하여 비상계획관 시험을 준비했다면 예비군 지휘관 시험 준비도 쉽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령들의 경우 비상계획관 시험에 합격하면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니 공석이 자주 나오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 약간의 모험도 필요했지만, 군인연금 혜택과 함께 회사의 연봉과 복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비상계획관이 군의 경력을 활용하여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직장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에 들어갔다.

### 비상계획관 도전 준비

가장 먼저 서류전형에 필요한 항목들을 확인하고 준비해 나갔다. 경력은 그동안 해왔던 나의 근무에 대한 평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자격증은 총 3가지가 필요하였다. 정보화 자격증은 워드 프로세스 1급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을 취득하는 데 각각 6개월 정도 소요되었다. 이렇게 1년 정도를 자격증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서류전형 준비를 모두 끝냈다. 관련 분야 자격증의 경우 기업재난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등을 취득하면 0.5점을 받을 수 있는데 전방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할 수 없는 여건이 제한되어 과감히 0.5점은 포기하고 필기시험에 주력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두 번째는 법령 필기시험 준비이다. 4개의 법과 시행령을 모두 암기 수준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시험에서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만큼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준비과정에서도 가장 큰 고통이 따른다. 처음에는 각 법령을 속독하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흐름으로 이어져 나가는지 파악하였고, 텍스트뷰라는 앱을 설치하여 관련 법령을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 출퇴근하면서 계속 반복하여 들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지방에 있는 가족에게 휴가를 갈 때도 항상 텍스트뷰를 이용하여 법령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하였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틀어 놓고 잠들었다.

현역으로 근무하면서 비상계획관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 특히, 나의 경우는 법령 공부를 준비할 당시에 강원도 화천에서 근무하고 있어 서울에 있는 비상계획관 시험 준비 학원에 등록하여 도움을 받을 수 없어 학원 교재를 구매하여 독학으로 법령을 공부했다. 그러나 반대로 사회와 격리된 강원도 화천의 깊은 산속에서는 퇴근 이후 저녁 시간을 오롯이 내가 시험공부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텍스트뷰로 들고 다독으로 법령 책을 몇 번 읽고 나니 법령에 대해 이해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법령에서 나오는 모르는 용어나 항목은 법령 책을 구매한 학원 선생님께 사진을 찍어 물어보며 공부하였다. 또한,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며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





며 빈출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서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4개의 법령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머릿속에 암기해야 한다. 처음에는 괄호 넣기 암기 방법으로 시작했고, 문장의 앞 글자나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한 자를 말하기 쉽고 연상될 수 있는 단어로 조합하여 암기하는 두문자 암기방법을 활용하여 출퇴근하거나 휴가 갈 때 등등 시간이 날 때마다 암기하였다. 6개월 정도가 지나니 법령 책을 보지 않고 기출 문제 시험을 볼 수 있는 수준까지 되었다. 한 달 정도 5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풀고 나니 더 이상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어 학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문제집을 추가로 구매하여 풀어보았다. 부대에서

주관하는 저녁 행사를 제외하고는 오직 저녁과 주말에는 비상계획관 시험을 준비하는 데 몰두하였다. 정말 간절하고 처절한 시간이었다.

마지막은 면접 준비이다. 소령의 경우 논술 시험은 없지만, 면접시험 시 주제발표 시간이 있기에 평소 신문 사실이나 논평 등의 자료를 꾸준히 정독하며 기본 배경지식을 쌓았다. 학원에서는 교수님들이 면접관이 되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면접시험도 보면서 면접 준비를 하는데 나의 경우는 강원도 화천에 근무하고 있으니 그럴 수 없었다. 학원에서 보내준 면접 자료를 바탕으로 혼자서 연습을 해보는 방법밖에 없었다. 면접 평가 각 항목별 예상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방법으로 준비하였다.

### 시험 D-day에 맞춰 20년 장기근속 휴가

이렇게 서류전형, 법령, 면접까지 모든 시험 준비가 완료되고 전역을 2년 앞둔 시점에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전반기 시험 일정 공고를 게시하였다. 소령 공석을 보니 7개의 공석이 보였다.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공석이었다. 강원도 화천 최전방에서의 나의 노력에 하늘도 감탄했으나보다 생각했다. 바로 응시원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 목록들을 준비하였다. 준비된 응시원서를 육군본부로 발송하고 시험 일정에 맞추어 그동안 아껴두었던 20년 장기근속 휴가를 신청하였다.

시험 D-day에 맞추어 10일간의 휴가기간 동안 실제 시험 보는 시간에 맞추어 매일 예상 문제를 풀어보며 시험을 준비하였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식사를 하고 8시에 도서관에 도착하여 밤 10시에 집에 들어와 2시간 정도 추가 공부를 하고 잠이 들었다. 오직 비상계획관 시험에만 모든 나의 하루 스케줄을 맞추었다.

그리고 D-day! 전날 시험 보는 장소 근처에 숙소를 잡고 마무리 공부를 마쳤다. 토요일은 법령 시험을 그리고 일요일에는

면접시험을 보았다. 토요일 법령 시험을 치고 나와서 가채점을 했는데 3~4개 정도 틀린 것으로 보였다.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합격점에 차이가 있으나 중간 정도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였다. 다음 날 면접은 비교적 주제발표도 잘했고 면접관들과의 면접도 웃음이 오가는 등 비교적 무난하게 마친 것 같았다. 이제는 내가 할 일을 다 했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면 됐다. 진인사대천명. 20년 장기근속 휴가를 가족과 함께 여행가는 데 사용하 게 아니라 제2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으로 쓴 것에 대해 가족에게 미안했다.

그렇게 시험을 치르고 부대로 복귀하여 다시 활기찬 마음으로 다시 업무를 하였다. 그리고 2주일 뒤에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정확히 오전 10시에 발표가 났다. 그리고 합격자 공고에 나의 수험번호가 보였다. 정말 기뻐했다. 너무 기쁘니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가족에게 가장 먼저 합격 소식을 알려주었다. 가족도 그동안 고생했다며 함께 기뻐해 주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한 가족에게 큰 선물을 준 것 같았다.

### 행운 같은 제2의 삶

이후 중령으로 명예 전역을 하고, 서울성모병원 비상계획관으로 임용되어 제2의 삶을 살고 있다. 비상계획관을 하면 군에서 한 업무의 10분 1만 해도 능력을 인정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랬다. 군에서의 규칙적인 생활, 건전한 가치관과 올바른 국가관, 성실한 업무 태도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병원 비상계획관을 하면서도 내 고유의 비상대비 업무 뿐만 아니라 병원의 안전과 보안, 재난훈련 등을 담당하며 나름대로 보람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임용된 지 3년도 안되어 병원 행정직원은 받기 힘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도 수상하였다.

주말에는 나의 취미이자 특기인 테니스 운동으로 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자격증 시험도 준비하면서 정년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 내가 준비했던 비상계획관 시험 과정에 대해 글을 올려놓고 시험 소식을 업로드하며 비상계획관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천주교 종교 활동을 하며 세례도 받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군 생활 때는 업무 때문에 가족 행사가 항상 뒷전이었는데 지금은 가족 행사가 가장 먼저여서 아내도 아들도 무척 좋아한다. 약 22년간의 군 생활을 하면서 전출, 교육 등으로 인해 이사를 20번 했었다. 결혼 후에도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야 해서 아이를 키우는 데도 힘든 시간을 보냈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가 중령 진급 비선으로 다가왔을 때는 슬픔의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슬프고 서럽고 미안함의 눈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내와 함께 매년 생일을 함께할 수 있고 2년에 한 번은 가까운 곳으로 해외여행도 하고 있다. 그동안 몸과 마음고생 많이 한 아내에게 앞으로는 행복의 눈물을 자주 흘릴 수 있도록 행운을 준 하늘에 감사한 마음이다.

※ 본 수기는 개인의 경험으로 정부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25년 제대군인 전직활동 지원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파트너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전국 10개 센터\*, 3개 출장소(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취·창업 컨설팅, 직업훈련 상담/예산 지원, 채용정보 제공, 구직알선 등

### 전화

1666-9279

### 홈페이지

www.vnet.go.kr



\*서울, 인천, 의정부, 수원, 춘천, 대전, 대구, 부산, 창원, 광주  
\*\*고양, 천안, 구미

## 일 자리를 구할 때까지 힘이 되는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 신청 대상

-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 후 전역한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 전역 후 6개월 이내의 실업상태인 자

### 지급 금액

- 매월 중기 58만원, 장기 81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수급 기간 중 취·창업 시 잔여금의 1/2을 일시금 지급



## 취업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주소지 관할 보건(지)청에 제대군인지원 등록을 마친 전역 후 3년 이내의 미취·창업자
- 국방부 전직기본교육을 수료한 전역예정자

### 지원 금액

1인당 150만원까지 지원 (자부담 20%)

## 취업으로 이어지는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 교육 대상

- 제대군인지원 등록을 마친 제대군인 및 전직기본교육 수료 전역예정자
- 미 취·창업자 중 교육 미수혜자 → 기수혜자 → 3년 이내 전역 예정자 → 기간제 취업자

### 지원 내용

- 평생 1인 3개 과정 교육 (중도 퇴소 시 당해연도 타과정 입교 불가)
- 교육기관이 승인받은 금액의 90% 교육비 지원(120만원 한도)
- ※ 2025년도 선정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과정 센터 홈페이지 참고



## 자기계발에 도움 주는 사이버연수원 운영

### 교육 대상

- 제대군인지원 등록을 마친 제대군인 및 센터에 회원가입한 전역예정자
- 현역 중 각 군에 사이버교육 수강 신청을 하고 센터에 회원가입한 자
- 우선지원 필요 의무복무자(취업맞춤 특기병, 경상이자, 저소득 모범장병)

### 지원 내용

- 월 3과목, 연 12과목 내 수강 가능 (미수료 시 2개월간 수강 제한)
- 교재비 정량 지원 1인당 6권(20만원 한도) 지원, 자부담 50%
-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한함
- ※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제대군인 사이버연수원(별도 회원가입)

##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 지원

### 지원 대상

- 제대군인지원 등록을 마친 군인연금 수급권이 없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중 공단이 구조대상으로 결정한 자

### 지원 내용

- 법률구조법 등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소송사건
- 민사·가사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형사사건
- 변호사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제반 소송 비용

## 제대군인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취·창업 지원

### 지원 대상

-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 ※ 우선지원필요 의무복무자(취업 맞춤 특기병, 경상이자, 저소득 모범장병) 중 전역 후 3년 이내 지원 희망자

### 지원 내용

- 전담 상담사 1:1 배정 취·창업 컨설팅
- ※ 전직지원신청(구직등록)자 진로설계, 정보제공, 채용추천, 맞춤형이력서·면접클리닉 등





# 창업의 꿈이 현실이 된다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정책 모아보기



어디선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창업의 꿈, 이제 현실이 될 차례이다. 막연한 꿈이 아닌, 구체적인 시작을 원하는 예비 창업자라면 주목하자. 2025년 정부 창업지원 사업이 첫 도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준다. 아이디어를 비즈니스로, 열정을 성공으로 바꿀 기회를 원한다면 바로 지금이다.

글 편집실



## 2025년 중앙정부 · 지자체 창업지원 현황

# 3조 2,940억원

101개 기관 / 429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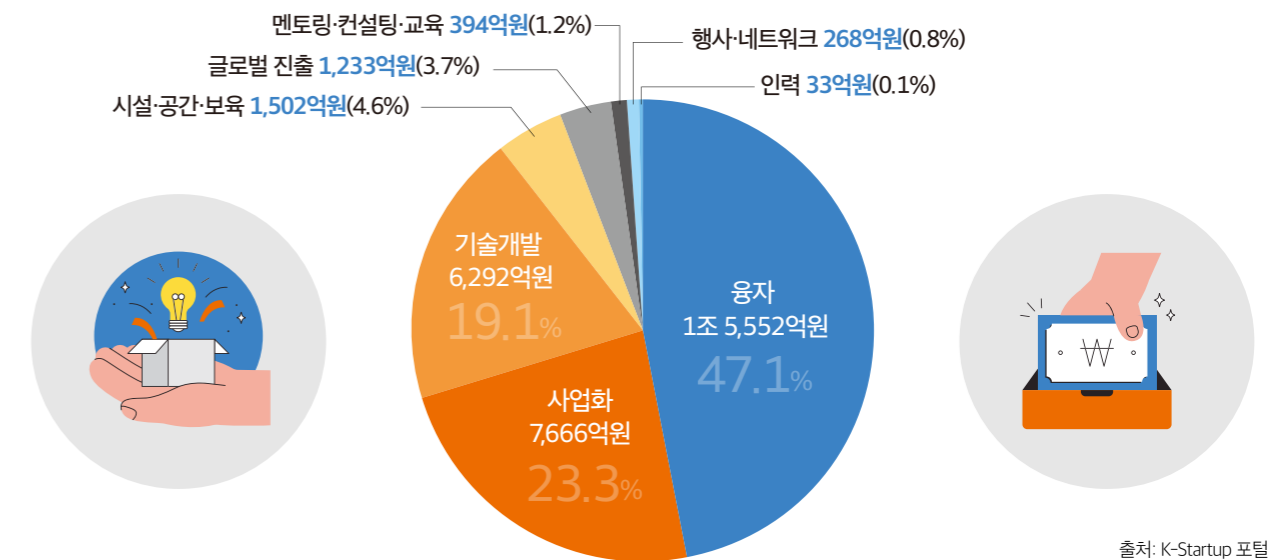
### 중앙부처 기관별 지원 예산

중기부	2조 9,499억원(94.6%)
문체부	530억원(1.7%)
과기부	454억원(1.5%)
환경부	237억원(0.8%)
농식품부	230억원(0.7%)
특허청	113억원(0.4%)
해수부	34억원(0.1%)
복지부	24억원(0.1%)
교육부	21억원(0.1%)
법무부	14억원(0.1%)
국토부	13억원(0.1%)
방사청	13억원(0.1%)
통일부	8억원(0.1%)

### 지자체(광역+기초)별 지원 예산

서울	14개 기관	382억원(21.8%)
경기	14개 기관	200억원(11.4%)
경남	10개 기관	186억원(10.6%)
전북	6개 기관	139억원(7.9%)
충남	2개 기관	136억원(7.8%)
대전	3개 기관	106억원(6.1%)
광주	5개 기관	105억원(6.0%)
부산	4개 기관	104억원(5.9%)
제주	1개 기관	103억원(5.9%)
강원	11개 기관	61억원(3.5%)
충북	1개 기관	58억원(3.3%)
경북	4개 기관	44억원(2.5%)
울산	3개 기관	42억원(2.4%)
인천	4개 기관	30억원(1.7%)
전남	4개 기관	25억원(1.4%)
대구	1개 기관	22억원(1.3%)
세종	1개 기관	7억원(0.4%)

## 분야별 창업지원사업 수 및 예산 현황



출처: K-Startup 포털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을 하고 싶다면?



K-Startup 포털 및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별 별도 공고하니,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여 개별 신청해야 한다.  
K-STARTUP → 사업소개 → 2025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창업 시 알아두면 유용한 사이트는?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https://www.sbiz.or.kr/nbs/main.do>
- 소상공인지식배움터 <https://edu.sbiz.or.kr/edu/main/main.do>
- 비즈니스지원단 <https://www.smes.go.kr/bizlink>
- 창업보육센터 <https://www.smes.go.kr/binet/main/main.do>
- 판판대로 <https://fanfandaero.kr/portal/main.do>
- 비즈 인포 [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창조경제혁신센터 <https://ccei.creativekorea.or.kr/seoul/>
- 중소벤처 24 <https://www.smes.go.kr/main/index>



## 2025년 창업 트렌드 분석

# 지속 가능성, 디지털 전환, 시니어 산업이 뜬다

2025년 창업 시장은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중심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창업 지원 정책 역시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변화하고 있으며, 예비창업자와 기 창업자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지속 가능성 ESG 창업이 필수가 되다

2025년 창업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지속 가능성이다. 친환경 제품, 탄소중립 서비스, 사회적 가치를 담은 비즈니스 모델이 투자 유치와 사업 성공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을 도입한 스타트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도 친환경 소재와 기술을 활용한 혁신이 필수적이며, 소비자들은 이제 단순한 제품 구매를 넘어 가치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가치 창출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스타트업들이 환경 문제와 사회적 과제 해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디지털 전환 AI와 빅데이터 기반 창업이 대세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는 2025년 창업 시장을 이끄는 또 하나의 핵심 동력이다. 제조, 유통, 금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고객 서비스 자동화 등이 각광받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기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AI 및 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금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 개발에 필요한 R&D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비창업자들은 기술 중심의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초기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시니어 산업의 성장

2025년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 4,550명으로 전체의 20%를 넘어 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올해를 시니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혁신적이고 지속적인 비즈니스 생태계가 구축되는 출발점으로 주목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국내 실버 산업 규모를 169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중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헬스케어 및 의료 서비스, 실버 테크, 고령자 주거 및 생활 서비스, 실버 여가 및 교육 서비스, 시니어 맞춤형 금융 서비스 등이 특히 주목받고 있어 창업 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살펴보기



중앙부처 13개  
87개 사업 3조 1,190억원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88개  
342개 사업 1,750억원

### 사업화

전담 기관	사업명
창업진흥원	· 예비창업패키지 / '25. 1월 · 초기창업패키지 / '25. 1월 · 창업도약패키지 / '25. 2~3월 · 초격차스타트업1000+ 프로젝트 / '25. 2월 · 민간공동창업자발굴 육성사업 / '25. 3월 · 통합 창업패키지 지원 / '25. 2~3월 · 창업중심대학 / '25. 2~3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 '25. 1~2월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 '25. 1~2월
한국콘텐츠진흥원	· 콘텐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 '25. 2~3월 · 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연계 사업화 지원 / '25. 2~3월 · 콘텐츠 투자 연계 사업화 지원 / '25. 1~3월 ·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 (콘텐츠 오픈이노베이션) / '25. 2~3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농식품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 '25. 3~4월 · 농식품 기술평가지원 / 상시 · 농식품 판로지원 / 상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대전 방산혁신 클러스터 방산진입형 드론특화 창업지원 / '25. 2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ICT GROWTH) / '25. 2월 · K-GLOBAL 액셀러레이터 / '25. 2월 · 디지털 혁신기업 글로벌 성장 바꾸쳐지원 / '25. 2월
국민체육진흥공단	·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 / '25. 2~3월 · 스포츠산업 창업증기(엑셀러레이팅) 지원 / '25. 2~3월
예술경영지원센터	· 예술기업 성장 지원 / '25. 2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 / '25. 1~3월
한국관광공사	·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 '25. 2월
방위사업청	·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 '25. 2월
남북하나재단	·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 / '25. 2~3월, '25. 8~9월 · 소규모 신규 창업지 지원사업 / '25. 3월, '25. 8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DATA-STARS) / '25. 3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유망 창업기업 투자유치 지원사업 / '25. 3월

### 기술개발(R&D)

전담 기관	사업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창업성장 기술개발 / '25. 4월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 첨단과학기술기업 글로벌 협력 스케일업 R&D 지원 / '25. 2월

### 시설·공간·보육

전담 기관	사업명
창업진흥원	· 지역창업특화지원 / 수시 · 창조경제혁신센터 / 수시 · 스타트업파크 / 미정 ·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 수시
한국창업보육협회	·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 수시
창업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창업존 / 수시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 공간정보 창업지원사업 / '25. 2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국토교통 창업 및 기업지원 / '25. 3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혁신창업멤버스 / '25. 2월

###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더 살펴보고 싶다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 'K-Startup 포털(k-startu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STARTUP → 사업공고 → 모집중 →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머릿속 생각, 어떻게 글로 표현할까요?

글 박지연 작가

**Q** 안녕하세요? 곧 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자기소개서를 써야 하는데, 글을 쓰려고만 하면 머리가 하얘지고 생각 정리가 힘듭니다. 머릿속에는 할 말이 많은데, 펜만 들면 두서없이 쓰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일목요연하게 담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군대에서 경험한 내용을 쓸 경우는 어떤 점에 신경 써야 할까요?

**A** “생각은 많은데 글로 쓰려고만 하면 막막해요”, “말로 하면 쉬운데, 노트나 모니터만 마주하면 한 글자도 못 쓰겠어요”라는 고민을 안은 채 전역 후 공부를 하려는 분도 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느 선택을 하든, 글쓰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써야 하고, 이력서도 준비해야 한다면 그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깨 위 돌덩이를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 왜 스토리텔링인가요?

왜 면접관들은 ‘군대에서 무엇을 배웠나요?’라는 질문을 할까요? 인사치레나 단순한 스펙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군 생활 동안 여러분의 경험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송길영 작가는 『시대예보: 핵 개인의 시대』에서 지금이 ‘당신의 모든 일상이 포트폴리오’가 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또한 모든 인간은 ‘자기 세일즈’를 해야 하며,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서사’라고도 합니다.

“저는 책임감이 강합니다.”라는 말보다 “저는 영하 15도에도 후임들과 보초를 서며 맑은 일에 충실했습니다.”라는 말이 더 설득력 있지 않나요? 굳이 ‘책임감’이란 말을 꺼내지 않아도, 글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막힌 생각의 문을 여는 방법

- 1 부담 내려놓기**  
첫 문장부터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메모하거나 마인드맵으로 생각을 연결해도 좋습니다. 맞춤법이나 문장력은 나중에 수정하면 됩니다.
- 2 대화하듯 풀어보기**  
옆자리에 있는 동기에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하는 식으로요. 박종인 작가는 『기자의 글쓰기』에서 ‘입말’을 강조합니다.
- 3 질문하며 생각 끌어내기**  
‘언제 있었던 일인지,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왜 그게 특별히 기억에 남는지, 거기서 배운 게 있는지’ 등도 생각해 보세요.

## 스토리텔링 실제 예시

[평이한 문장]

“저는 군대에서 위기관리 능력을 배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추상적이며, 근거 부족*

[수정한 문장]

“새벽 3시, 갑작스레 전산망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600명의 장병 정보가 담긴 서버가 다운되어, 다음 날 아침 점호 전까지 복구해야 했습니다. 팀원들과 속히 원인을 찾으며, 해결을 위해 백업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다행히 두 시간 뒤에 모든 시스템을 정상화했습니다.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위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구체적이며 경험을 토대로 한 해결 과정 드러냄*

## 글쓰기 기본원칙 세 가지

- 1 쉽게 쓰기** \_\_ 군대용어는 피하고 일상적인 표현을 사용하세요. 어려운 단어 대신 쉬운 단어를 선택하세요.  
예) 상황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 2 짧게 쓰기** \_\_ 한 문장에 한 가지 내용만 담으세요. 불필요한 수식어는 과감히 지우세요.  
예) 그 당시 우리 부대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부대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3 구체적으로 쓰기** \_\_ 추상적인 표현 대신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세요. 숫자, 데이터를 활용하세요.  
예) 추운 날씨였습니다. → 바깥 기온이 영하 15도였습니다.

## 실전 글쓰기

- 1단계: 키워드로 생각 나열하기**  
예) 야간 근무 - 힘들었음 - 후임들 관리 - 해결 방법 찾음
- 2단계: 질문으로 구체화하기**  
예) 그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 경험이 나에게 준 교훈은?
- 3단계: 스토리텔링하기**  
예) 올해 1월, 밖은 영하 15도였습니다. 후임들은 추위에 지쳐만 갔고 고민했습니다. 문득 훈련 때 배운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 효과적인 스토리텔링 구조

- 1 상황 제시:** 언제, 어디서 있었던 일인가요?
- 2 문제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 3 해결 과정:** 어떻게 대처했나요?
- 4 결과 및 교훈:**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성장했나요?
- 5 앞으로의 적용:** 그때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군 복무 동안 겪은 모든 순간을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따라 값진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헤쳐 나가는 과정 자체가 장병들만이 가진 고유한 ‘서사’이자 스토리텔링이 되니까요. 그동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값진 경험이 새로운 시작을 여는 열쇠가 되어, 원하는 곳에서 꿈을 펼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글쓴이 소개** · <티앤북클래스> 대표이자 라이팅 코치로 활동 중  
· 『꿈이 있는 엄마의 7가지 페르소나』, 『역마살 엄마의 신호등 육아』 등 다수 출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로 보는  
역사와 보훈 지식

글 편집실

# 신간회와 이상재



## 2021년 8월 7일 제5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기본) 37번 문항

이상재 선생의 장례가 사회장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선생은 '일체의 기회주의를 부인함'등을 강령으로 내세운 (가) 의 초대 회장으로 민족 유일당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마지막까지 민족 운동에 헌신하였던 선생의 죽음을 많은 사람이 애도하였습니다.

- ① 보안회
- ② 신간회
- ③ 진단 학회
- ④ 조선 형평사



[정답] ②번

이상재 선생이 초대 회장이었던 단체는 신간회입니다. 신간회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해 결성한 단체로 정치적, 경제적 각성 촉구, 민족의 단결, 기회주의 부인을 강령으로 내세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입니다. 이와 관련한 역사 지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 일제강점기 최대 민족운동 단체 신간회

1920년대 후반, 독립운동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3·1운동 이후 일제는 무력 진압에서 '문화통치'로 전략을 바꾸었고, 독립운동 내부에서도 무장 투쟁과 타협을 둘러싼 갈등이 커졌어요. 하지만 이때,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힘을 합쳐 거대한 민족운동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바로 1927년 창립된 '신간회(新幹會)'입니다.

신간회는 당시 독립운동 세력 간의 대립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에서 탄생했습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일제와의 어떠한 협력도 반대)와 사회주의자(노동·농민 계층을 기반으로 독립운동을 전개)들이 연합하여 조직한 단체였습니다.



신간회 창립 행사 장면<출처: 민족문제연구소>

### 개화·계몽운동의 선구자 이상재 선생

이상재(李商在, 1850~1927) 선생은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에 걸쳐 교육·계몽·독립운동에 헌신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충청남도 서천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유학을 공부했으며,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승정원 승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조선이 외세의 침략을 받자, 그는 정치보다 민중 계몽과 독립운동에 헌신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1927년, 그는 신간회의 초대 회장이 되어 민족 단결과 항일운동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그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독립운동과 민권 신장을 주도하며 독립운동 세력을 하나로 묶는 중심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간회 활동 중 병을 얻었고, 1927년 3월 29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 민족운동·사회적 평등 추구·계몽운동 핵심 활동 방향

신간회의 주요 목표는 민족의 독립과 해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신간회는 세 가지 핵심 활동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민족운동의 통일과 강화입니다. 일제에 맞서 조선 민족의 자주독립을 이루기 위해 민족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데 주력했습니다. 민족운동의 통일성과 조직 강화를 통해 일제의 지배에 저항하고자 한 것이지요. 두 번째는 사회적 평등 추구입니다. 단순히 민족의 해방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자와 농민 등 민중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공통된 목표였으며, 신간회는 이를 통해 폭넓은 민중의 지지를 끌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몽 운동입니다. 대중을 계몽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 활동과 연설회, 출판물 등을 통해 계몽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중이 일제의 억압을 극복하고 민족운동에 동참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신간회는 1931년 해체됩니다. 내부적으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 간의 갈등이 깊어졌고, 일제의 탄압도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간회가 남긴 의미는 컸습니다. ㉞



신간회 나주지회 창립대회 기념



조선일보 기사(1927년 2월 14일 2면)



## 담장 안 수형자와 담장 밖 사회의 연결 고리 가석방 심사관 & 교도관

최근 방영된 tvN 월화 드라마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이 인기를 끌면서 가석방 심사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긴다. 그리고 드라마에 함께 등장한 교도관에 대한 궁금증도 이어진다. 쉽게 접하기 힘들기에 더 궁금한 가석방 심사관과 교도관, 그들에 대해 알아본다.

글 편집실



사진 출처: tvN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

### 수형자들의 희망 가석방과 가석방 심사관

드라마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에서 배우 고수가 맡은 주인공 이한신은 죄인을 교화하던 교도관에서 죄인을 대변하던 변호사로, 그리고 죄인에게 반성과 책임을 묻는 가석방 심사관까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인생행로를 걷는다. 존경하던 교도관 선배가 억울한 사건에 휘말려 수감될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좌절하기도 잠시, 그는 부조리함을 바로잡을 힘을 갖기로 결심하고 동료 변호사들의 경멸 섞인 시선을 견디면서도 회장님들의 비위를 맞추고 잔심부름하는 집사변호사로 일하며 가석방 심사관을 향해 나아간다. 마침내 가석방 심사관이 된 그는 교도관으로 근무하던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석방으로 출소해도 되는 자와 출소해선 안 될 자를 판단하기 시작한다.

가석방은 수형자가 형의 집행 기간 중 일정 기간을 수용 시설 밖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제도이다. 가석방을 통해 수형자는 교도소에서의 생활을 일정 부분 면제받고 사회에서 재할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재범 방지, 그리고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가석방은 이처럼 형기 만료 전 수형자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수형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이자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가석방 심사관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즉 가석방 심사관은 수형자와 사회 간의 연결 고리로서, 그들의 공정하고 세밀한 심사를 통해 수형자의 재할 가능성이 극대화되고, 사회 안전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법률 지식 및 경험, 심리학적 지식, 공정성과 윤리성, 직무 경험을 토대로 가석방 심사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가석방 심



사관은 수형자가 교정 기관을 통해 가석방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형자의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교정 기록, 수형자 평가 보고서, 피해자 진술 등을 포함한 심사 자료를 검토하고 수형자와 심층 면담을 통해 가석방 의지와 사회 복귀 준비 상황을 확인한다. 이후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최종 결정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최근에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AI 데이터 활용, 심사 기준의 투명화, 사후 관리 시스템 강화 등 가석방 심사제도 개선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 가석방심사위원회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장관 소속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형법 제72조에 의한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제복 입은 숨은 영웅  
교도관



한국 감옥의 역사는 삼한시대까지 올라가지만, 교도관의 역사는 구한말 갑오개혁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전의 감옥은 사법행정 구분이 없어 대개 관청 한쪽 구석이나 부속 건물에 설치되어 포졸들이 그 사무를 보았기 때문에 독립적인 교도관 계층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다 구한말인 순종 조에 접어들며 감옥 관리들은 독자적인 계급과 복제까지 갖추는 등 기존의 행정관리나 경찰과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교도관의 계급과 그 역할은 시대별로 계속 변천되어 왔으며, 현재의 계급 제도는 제4공화국 시기인 1976년에 거의 완성되었다.

드라마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에서 배우 고수도 처음에는 교도관이었다. 교도관은 수형자와 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으로, 수형자에 대한 지도·계호, 교정시설의 경계, 교정시설의 운영·관리, 그 밖의 교정 행정에 관한 사항을 교정직 교도관의 직무로 법에 명시하고 있다.

수형자가 건전한 국민정신과 올바른 생활 자세를 가지도록 생활지도 및 교육에 노력하고 교육·교화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교육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며 접견, 물품 지급 등에서 수형자를 공정하게 처우하고, 그 처우가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및 교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수용자의 작업을 감독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수용자의 청원 등을 처리하는 것도 수행해야 하는 일이다. 교화 교육도 중요하다. 수용자가 건전한 정신과 올바른 생활 자세를 갖도록 돕는 것인데, 수시로 상담하여 그들의 상태를 살피고 정서 순화, 정신교육, 종교 생활지도 등을 하게 된다. 수용자들이 사회에 복귀했을 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미용, 컴퓨터, 자동차정비, 제과·제빵 등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국가기술자격 등을 취득하도록 도움을 준다.

근무의 특성상 보안을 지키며 대중 노출이 되지 않는 직업이기에,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만나는 교도관이 우리가 아는 교도관의 모습이지만, 묵묵하게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해내는 교도관들이 대부분이다. 수형자를 교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 교도관이라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기에 여러 압박에도 불구하고 교도관들이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히 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회는 한발 더 나아갈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범죄와의 연결점에서 우리 사회를 지키는 사람, 다른 아닌 교도관일 테니까 말이다.



교도관(교정공무원)의  
꿈을 키워대!

교정공무원 구성

교정공무원은 수형자 교정교화 및 수용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직공무원, 수용자의료처우 업무를 담당하는 의무직공무원,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직공무원 등의 일반직 공무원과 수용자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전문경력관(직업훈련교사) 및 기록연구사, 관리운영직공무원으로 구분되며, 2023년 3월 기준 정원은 일반직 1만 6,629명, 기록연구사 4명, 전문경력관 121명, 관리운영직 54명으로 총 1만 6,808명이다.

채용 방법

교정직 공무원 신규 채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공개경쟁(민간경력)채용 및 부처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 등에 의해 채용하고 있다.

※ 공개경쟁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참고(www.gosi.kr)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5급	1차 시험(선택형 필기)	2차 시험(논문형 필기)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필수(4): 교정학,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선택(1):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7급	1차 시험(선택형 필기)	2차 시험(선택형 필기)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9급	국어, 영어, 한국사,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신규 채용 시 체력 검사제 도입

교정직 6급 이하 임용시험에 적용되는 체력 검사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여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 악력, 윗몸일으키기,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등 4개 종목을 측정하며, 불합격 기준은 4종목 중 1종목 이상 실격 기준에 해당하거나 2종목 이상 합격 기준에 미달하면 불합격 처리한다.

체력 검사의 종목	성별	합격기준	실격기준
20미터 왕복오래달리기	남자	48회 이상	41회 이하
	여자	24회 이상	19회 이하
악력(握力)	남자	47.0kg 이상	41.9kg 이하
	여자	27.0kg 이상	21.9kg 이하
윗몸일으키기(회/60초)	남자	38회 이상	32회 이하
	여자	26회 이상	21회 이하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남자	12.29초 이내	13.61초 이후
	여자	14.60초 이내	15.61초 이후

근무 형태

교도소와 구치소는 총무과, 보안과, 직업훈련과(수용기록과), 복지과, 사회복지과, 의료과 등의 공통부서를 두고 있고, 그 외 기관 특성 및 기능에 따라 출정과, 분류심사과, 민원과, 시설과, 국제협력과 등의 부속 기구를 두고 있다. 교정직 공무원은 대부분 보안과에 배치하게 되며 그 외 총무과, 복지과 등 행정 부서에서 근무하게 된다.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소개 → 채용교육 → 신규채용

교도관  
임금 수준 및  
직업 만족도

자료: 워크넷, 교도관(2021)



평균 연봉  
3,765만 원

직업 만족도  
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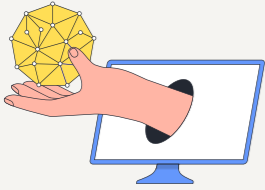
교도관에 대해  
더 살펴보고 싶다면?  
교도관을 비롯해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는  
큐넷 직업백과를 참고하세요.





C E S 2 0 2 5

## CES 2025에서 본 3가지 포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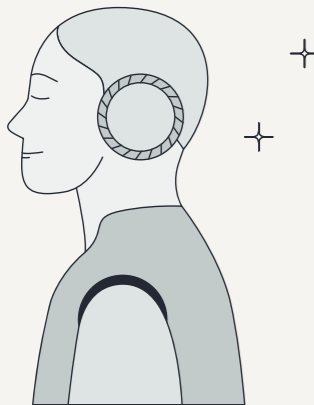


IT 업계에는 매년 주목할 만한 3대 쇼가 있다. 1월의 CES, 3월 초의 MWC, 그리고 9월의 IFDA. 그중에서도 CES는 글로벌 리더들의 키노트와 다양한 기업들의 전시를 통해 기업들의 비전과 한 해의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진다. 올해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1월 CES에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포커스를 발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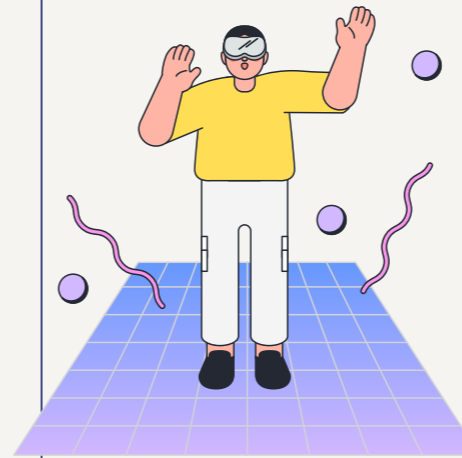
### 첫째, 엔비디아의 피지컬 AI와 로봇 플랫폼 코스모스

2025년 CES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건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의 키노트였다. 8년 만에 CES 키노트 무대에 오른 그는 '피지컬 AI'의 시대를 이야기했다. 이는 AI가 물리적 실체를 가지게 된다는 뜻으로, 젠슨 황은 이를 로봇공학의 '첫 GPT 모멘트'라고 표현했다. 물리적 실체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로봇으로 나타난다. 이를 위한 플랫폼인 '코스모스'의 발표가 이어졌다. 여기서도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AI의 시대 엔비디아가 반도체와 이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모델인 'KUDA'로 시장을 석권했듯 로봇의 시대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미다. 또 하나는 키노트에서 14종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여줬는데 이미 유명해진 아질리티 로보틱스, 피규어 AI 등을 선보였으나 아쉽게도 한국 기업은 없었다는 점이였다. 더 경쟁이 치열해질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3 F O C U S E S

### 둘째,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의 가속화



더 현명하고 빠른 탈것을 의미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의 가속화를 찾을 수 있었다. North 홀에 부스를 차린 중국기업 샤오핑의 2인 탑승 드론이 큰 주목을 받았다. 접이식 모듈러 방식으로 설계된 이 드론은 평소 차량의 트렁크 부분에 탑재했다가 필요시 이륙이 가능한 형태다. 이미 사전 주문을 받고 있고 내년에는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자체 기술로 탑승형 드론이 나오는 건 시기상조인데 이미 시장은 이쪽으로 달려가고 있다. 또 하나는 소니의 전기차 '아필라'다. 3년 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겠다 선언했던 소니는 Honda와의 협업으로 만든 '아필라'를 공개했고 올해 판매를 시작한다. 소프트웨어 회사가 이제는 전기차까지 만들 수 있는 시대임을 다시 한번 알렸다. 2024년 자율주행 트랙터로 화제가 되었던 존디어는 이번에는 자율주행 잔디깎이 기계와 덤프트럭까지 전시하며 농업 기술의 미래를 제시했다. 국내 기업 대동 역시 자율주행 트랙터를 선보이며, 농업과 관련된 기술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아마존이 투자한 죽스, 구글의 웨이모, 모빌아이, 쉐클 등의 자율주행 기술 경쟁도 이번 전시회를 통해 더욱 뜨거워졌다. 2025년에는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듯 스마트 모빌리티는 관심과 연구의 대상에서 실생활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단순히 기술적인 우위의 표현과 매출 향상이 목표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노동력에 대한 해답이라는 면에서도 주목해야 한다.

### 셋째, 온디바이스 AI의 부상

온디바이스 AI는 인터넷 연결 없이도 작동 가능한 AI로, 특히 이번 행사에서 주목받았다. 아쉽게도 CES 행사장 내에는 인터넷 연결이 끊기는 지역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인 마음AI와 페르소나AI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선보이며 빠르고 안정적인 AI 경험을 제공했다. 온디바이스 AI는 보안 문제 해결에도 효과적이며, 관련 기술의 발전과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 마무리하며

이 외에도 CES 2025에서는 수많은 IT 이슈가 다뤄졌지만, 위의 세 가지가 대표적인 키워드라고 생각된다. 2025년 관련 산업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흐름을 읽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 글 이임복

현) 세컨드브레인연구소 대표, 인터랙티브박스 대표, 한국경제인협회 MWC 모더레이터,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유튜브 일상 IT 운영자



훈련소로 가는 길,  
눈물 거두니 아름다움과  
역사가 보인다

## 충남 논산

글 박선경 사진 권진혁

이토록 눈물과 아쉬움, 그리고 반가움이 공존하는 곳이 있을까?  
바로 정에 육군을 양성하는 충남 논산 연무대의 이야기다.  
여전히 이별의 장소, 고된 훈련의 장소로만 기억한다면 눈을 살짝 돌려보자.  
연무대 인근에는 입영 때는 알지 못했던 진한 아름다움과  
유서 깊은 역사를 간직한 명소가 곳곳에 가득하다.

###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육군훈련소

충남 논산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대한민국 육군훈련소다. 신병을 맞이하는 월요일과 목요일, 연무읍 육군훈련소 입소대대 일대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해진다. 무수한 청춘들이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날이자 가족, 친구, 애인과의 이별을 고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가는 이에게도, 보내는 이에게도 애뜻함을 남기는 그런 날이다.

논산 육군훈련소는 6·25전쟁 당시인 1951년 신병 기초군사훈련을 위해 '육군 제2훈련소'로 창설됐다. 연무대로 잘 알려진 지역 이름은 '무예를 단련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입영 행사를 마친 신병은 현역일 경우 입소대대에서 3일, 훈련소에서 5주간을 지내게 된다. 유격, 사격, 제식, 화생방, 각개전투 등의 훈련 과정을 거치고 자대배치를 받기까지 연무대가 임시 보금자리다. 훈련소 앞에 서자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입영하는 장병들은 이 문을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다짐을 했을까? 그 마음에 들어가 보니 연무대의 의미가 더욱 깊게 다가왔다.

### 애뜻한 안녕의 공간, 육군훈련소 체험문화공원

입소가 없는 날의 연무대 일대는 적막할 만큼 조용했다. 대신 며칠 전 누군가 흘렸을 눈물을 기억하는 '육군훈련소 체험문화공원'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육군훈련소 체험문화공원은 육군훈련소와 입영심사대 그리고 연무대역 부근에 조성된 작은 공원이다. 이곳은 입영 장병들이 마지막으로 가족 혹은 연인과 작별 인사와 기념사진을 찍는 공간으로 애용되는데, 종종 면회객과 군 장병이 반가운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도 사용된다.

또 입영 전 짧은 시간, 마지막 서로의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 사진 한 장을 남기고 안녕을 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육군훈련소 체험문화공원은 그런 아쉬움을 달래는 공간으로 애용되고 있다. 이를 돕기 위해 공원에는 다양한 시설물이 조성되어 있다. 잠시 안녕을 고하는 시간을 예쁜 추억 한 장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장미터널과 사랑의 열쇠, 추억의 고무신 등의 시설물을 조성해 둔 것이다. 이곳에서 눈물 가득 고인 군화와 고무신은 마음 한쪽에 단단한 기다림의 각오를 새기게 된다.

CHUNG CHEONG NAM DO NONSAN



**훈련소 옆 국내 대표 한류관광지, 선사인랜드**

육군훈련소 지척에는 K-드라마 열풍에 힘입어 한류 관광의 중심으로 떠오른 곳이 있다. 그곳을 찾아가는 길, 육군훈련소 담장이 손이 닿을 듯 가까이 보였다. 그래서인지 아들, 친구, 연인이 있는 곳에 조금 더 머물며 호흡하고 싶은 마음에 이곳을 찾는 이들부터 한류 관광지를 찾아오는 관광객까지 늘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선사인랜드는 국내 최초 민관합작 드라마 테마파크로, 개화기 촬영 세트장인 선사인스튜디오, 한국전쟁 직후의 풍경을 재현한 1950스튜디오, 실내에서 사격과 가상현실(VR) 체험을 즐기며 훈련소 추억을 자녀와 공유하는 밀리터리체험관 등으로 구성된다. 총면적 약 2만㎡에 이르는 선사인스튜디오는 1900년대 초반 한성(서울)을 재현했다. 한성전기 사옥을 비롯한 근대 서양식 건물과 기와집, 초가집, 일본식 가옥에 1899년 운행을 시작한 전차까지 어우러져 120여 년 전 모습을 그대로 구현했다. 이곳에서 tN 드라마 '미스터 선사인'의 대부분을 촬영했다. 극 중 '글로리 호텔'로 들어가면 카페 '가배정'은 지금도 영업 중이고, 드라마 소품 전시관이 곁에 있다. 디즈니 드라마 세계 1위를 기록했던 '파친코'도 이곳에서 촬영했다. 드라마를 본 이들은 장소마다 역인 이야기를 풀어내거나 기념사진을 남기며 추억을 쌓는 모습이었다.

**동양 최대 길이를 자랑하는 탐정호 출렁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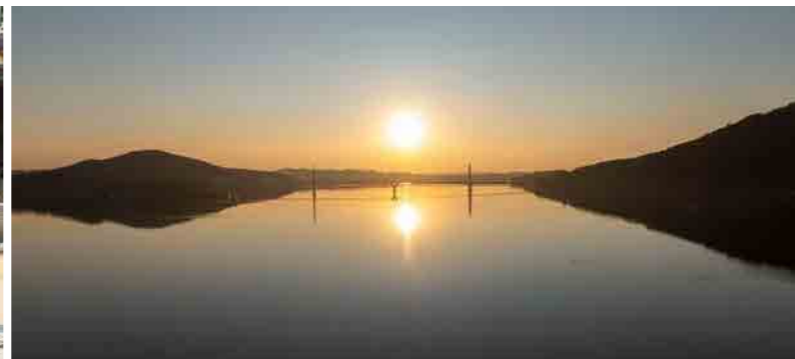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 시간. 마지막 목적지인 탐정호로 향한다. 탐정호는 충남에서 두 번째로 큰 저수지로, 보기만 해도 마음이 뽕 뚫리는 시원한 호수와 그 위를 수놓은 출렁다리가 방문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봄에는 분홍 벚꽃, 여름에는 푸른 녹음, 가을에는 오색 단풍, 겨울에는 하얀 눈이 탐정호를 둘러싸며 수채화 같은 풍경을 자아낸다.

해 질 무렵의 탐정호는 더욱 화려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저 멀리서부터 물들어 오는 주황빛 노을이 호수 전체를 붉게 물들이니 낮보다 더 진한 아름다움과 여운을 남긴다. 탐정호를 가로지르는 길이 600m의 출렁다리를 걸으며 운수를 보고 낙조를 만나니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온 나와 우리를 따스하게 어루만지는 것 같았다. 바람에 따라, 누군가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리는 다리는 우리 삶과 닿아 있는 듯하다. 그런 흔들림에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뒷모습이 위풍당당하다.

수변을 따라 물 위에 설치된 '힐링수변데크산책로'를 걷는 것도 좋다. 서정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나무데크 길을 걷다 보면 반쯤 물에 잠긴 나무와 겨울 철새들이 풍경을 더한다. 봄(4월)이 되면 음 악분수도 가동된다고 하니 그때 다시 한번 오겠노라는 다짐을 남기며 탐정호와의 이별을 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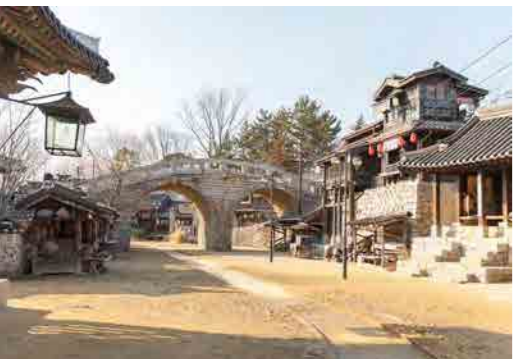
타다움 출렁다리



안울 물길 호수

선사인랜드

선사인랜드



육군훈련소 체험문화공원



논산의 맛 '한우'



**Tip.**

**논산의 맛, 한우와 딸기**



논산에는 유난히 한우 전문점이 많다. 논산 전역에 한우 전문점이 있지만, 훈련소 가는 길에는 줄지어 있을 만큼 한우 취급 음식점이 많다. 곰곰이 이유를 생각해 보니 답을 알 것 같다. 훈련소 가는 아들, 친구, 연인에게 마지막으로 영양 가득한 음식을 먹고 싶은 그 마음이 한우전문점을 찾게 했고 그 수요에 맞춰 점점 더 생겨났으리라. 한우전문점은 대부분 구이부터 불고기, 갈비찜, 탕까지 다양한 메뉴를 취급하고 있다. 넉넉하고 정갈한 손맛에 한우까지 더해지니 없던 입맛도 돌아오는 듯하다.

3월에는 27일부터 30일까지 논산딸기축제도 열리니 논산을 찾을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논산시민가족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딸기 축제는 '논산딸기, 세계를 잇다'란 주제로 다양한 공연, 전시, 체험, 판매 등과 연계한 '논산딸기 테마존', 대한민국 국방군수산업을 이끄는 논산의 새로운 산업 전략과 연계해 육군항공학교의 헬기 전시 및 체험과 방산을 전시·홍보할 '논산방위산업관' 등이 운영된다.



① 육군훈련소 체험문화공원  
위치: 충남 논산시 금곡1길 9-18  
운영: 상시개방



② 선사인랜드  
위치: 충남 논산시 연무읍 봉황로 90  
운영: 10:00~18:00(매주 수요일 휴장)



③ 탐정호 출렁다리  
위치: 충남 논산시 부석면 신평리~가야곡면 종연리 일원  
운영: 11~2월 09:00~17:00 / 3~5월, 9~10월 09:00~18:00 / 6~8월 09:00~20:00 / 마감 30분 전까지 입장 / 연중무휴



## 제대군인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든든한 지원 플랫폼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제대 후 막막한 제대군인들에게 등불처럼 길을 안내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데 길동무가 되어 주는 곳이 있다. 제대군인들의 동반자,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이다. 지난 21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하는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를 만나보자.

글 박선경 사진 권진혁



### Q.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소개 및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A.** 2004년 개소한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는 취업상담팀, 기업협력팀, 교육행정팀, 창업지원팀 20명의 직원이 맞춤형 취·창업 상담 및 경력설계,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 및 구직활동 지원 등을 통해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별 취업 목표 설정부터 1:1 전직지원컨설팅, 경력·역량 분석,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모의 면접 등의 취업 상담 및

지원과 기업협력활동을 통한 제대군인 일자리 발굴, 우수인재 추천, 각종 구인구직행사, 업체와의 MOU를 통한 기업관리, 동행면접 등 기업 상담 및 지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취·창업에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각종 직업훈련기관 입교 지원, 취업역량 강화 및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창업 상담 및 지원까지 제대군인들의 취업부터 창업, 해외취업까지 전천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Q.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를 포함한 전국에 10곳의 제대군인지원센터 중 서울센터만의 차별화된 점은?

**A.**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만의 특화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센터에는 창업지원팀이 있고, 창업보육실을 운영 중이어서 창업의 꿈을 꾸고 펼쳐고자 하는 제대군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첫 기업 상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6개 기업이 창업보육실을 거쳐 갔습니다. 대부분 사업자등록 후 창업해 열심히 사업 중에 있으며, 현재 1개 기업이 상주기업으로 선정되어 입주해 있고, 비상주기업의 경우 희망 시 비상주로 입주도 가능합니다. 입주 대상은 예비 및 초기 창업자로, 온라인공모를 통해 입주희망기업의 신청을 받고, 공정한 선정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기업이 입주 협약을 거쳐 입주를 시작합니다.

또 2019년부터 해외취업 전담상담사를 채용해 제대군인들의 해외 취업을 돕는데 있어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필요한 자격 요건과 채용 시장의 트렌드가 다르긴 하지만 주로 제대군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병과 특성, 경력, 활동 내용 등을 기반으로 개별 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입직 가능한 취업지를 다양하게 상담하는 편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취업의 가능성이 높은 베트남 같은 국가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의 k-move 취업연계과정에 대한 내용을 아세안 국가별로 설명회 형식으로 추진해 준비가 낫았던 분들도 새로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센터를 통해 해외에서 꿈을 펼치고 있는 제대군인들의



인원은 80여 명으로 해외 진출에 성공한 국가는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영미권인 미국과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목표로 기술직과 관리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중기복무자의 경우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활용해 호주와 일본 등에서 서비스 및 음식점, 시설·건설 직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라크, UAE 같은 중동 국가들에서는 건설 현장 보안, 중장비관리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대군인들이 많으며, 간호병과 출신들의 경우에도 복리후생이 좋은 해당 국가에 취업한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멕시코와 같은 중남미로 취업설명회를 통한 연수 과정 연계로 자동차 기업 관리자로 취업한 사례도 있어 국가의 제한 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이버연수원 운영 담당과 온라인 방송실 운영으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제대군인들에게 온라인으로 각종 워크숍 및 설명회를 개최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를 찾는 제대군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A.**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의 관리 제대군인 2만여 명, 취업 지원 대상 제대군인은 2,000여 명입니다. 센터를 찾는 제대군인들은 각자 목적이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대상**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중 교육비 신청일이 현재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창업자. 기간제 근로자(2년 이내의 기간제 근로, 일용근로, 단시간 근로 등), 교육 시작일이 현재 1년 미만 창업자, 1년 이상자 중 월평균 사업소득이 최저임금 이하자

**지원 금액**

1인당 150만 원까지 수강료의 국비 지원 비율 80%를 제공(자기부담률 20%)

**전직지원금**

**지원 대상**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의 실업 상태인 사람

**지원 금액**

매월 중기복무(5년 이상~10년 미만) 58만 원, 장기복무(10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81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사이버교육**

**신청 대상**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및 전역 예정자

**신청(학습) 과목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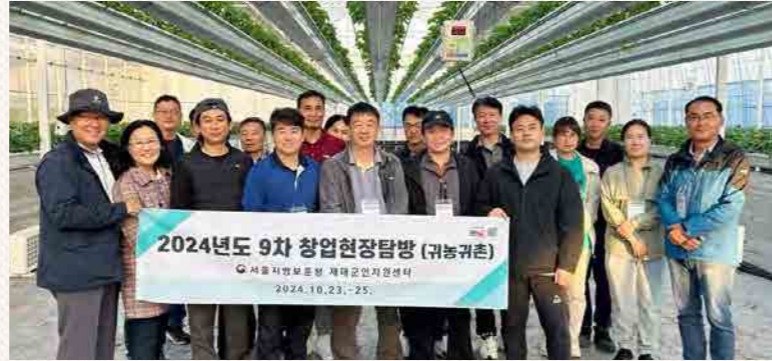
1인당 월 3과목(연 12과목)

**수강 신청 및 승인기간**

전월 10일 09시~20일 24시 신청 후 21일~24일 내에 검증 및 승인 처리

**교육 및 교재비**

교육비는 국가보훈부 지원, 교재비는 본인부담금 50%로 1인당 6권까지 지원



**Q. 2025년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점 사업은?**

**A.** 올해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는 제대군인의 취·창업의 동반자로서 제대군인을 위한 일자리 발굴에 주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일 찾기 한마당, 스몰박람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구인구직행사 및 직업훈련과정설명회, 취업상담 및 구직서류컨설팅, 창업특강 및 설명회 등을 함께 개최할 예정입니다. 컨설턴트&컨설팅 강화프로그램 '제군 시너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 제대군인 전직지원 상담 사례 및 상담 기법을 공유하고, 고객 신뢰 증진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취·창업 희망 분야별 구직 동향 및 성공 상담 사례 모음 사례집을 편찬하는 것입니다.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제대군인 선호자격증인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증 취득반을 특별반으로 연 2회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대군인 주간(매년 10월 둘째 주)에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를 다양하게 펼칠 것입니다. 지난해 첫 라디오방송 캠페인을 제대군인 주간에 1주일간 편성한 것을 확대해 올해는 10월 한 달 동안 센터 소개 및 사업 소개를 통해 제대군인지원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대국민 홍보 실시, 기업체 인사 담당자 및 미가입 제대군인 대상으로 인지도 높은 취업포털사이트 '사람인' 또는 '잡코리아'에 배너광고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창업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창업지원 정책 정보 제공,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귀촌 프로그램을 실시(농촌, 어촌, 산촌의 귀촌지원프로그램 정보 제공 및 다양한 탐방)하는 등 다양한 창업자 양성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Q.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제대군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첫째, 전문가인 센터 상담사를 잘 활용하고 상시 소통을 해서 자신을 인식시키세요. 그래야 선택받는 데 유리합니다. 둘째, 전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회는 군 생활 반만 해도 성공합니다. 실패한 제대군인보다 성공한 제대군인이 더 많다는 것을 믿으세요.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재진단하고 생애 설계를 기반으로 한 목표설정을 하고 제대로 준비하세요. 넷째, 제대군인을 우대하는 기업과 단체가 많습니다. 취업에 필요한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끊임없는 도전을 하십시오. 다섯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입력해야 인재 검색에서 노출되고 알선이 됩니다. 여섯째, 사회는 복잡하므로 모르면 물어보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73 양지빌딩 3층  
운영 09:00~18:00  
문의 1666-9279



**직원들의 복지 개선과 제대군인의 일자리를 위해 더 소통하고 더 협력하는 중**

**노상현**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장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 보훈과장, 서울남부보훈지청 보훈과장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9일자로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장에 부임했습니다. 부임 이후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실 환경 개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 직원들과의 소통 시간을 확대하고 조직문화 에티켓 전문 강사의 특강을 마련하는 등 직원들의 애로를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는 중입니다.

안으로 이처럼 소통하고 개선의 시간을 가졌다면 밖으로는 제대군인들이 교육 후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보훈청과 연계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월과 9월 제대군인 취업박람회를 열고,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직접 기업과 제대군인을 한 자리에 모아 구인구직행사, 취창업설명회 등 SMALL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한국소방안전원과 1년에 2회 제대군인을 위한 특별반을 개설하고,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와의 협약으로 보훈가족 및 제대군인 수강료 할인(18만 원 → 10만 원) 약정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업과 제대군인을 한자리에 모아 일 찾기 한마당을 여는 등 2025년을 알차게 보낼 계획입니다.

I N T E R V I E W



# 새로운 출발에 대한 용기와 방향성 졸업생을 위한 추천 도서



##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우천이 오월구일

세계적인 인공지능 전문가 우천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직장, 인간관계, 자기계발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전한다. 특히 실패와 역경을 대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사회초년생들이 직면할 혼란과 고민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해준다.



## 죽은 시인의 사회

N.H. 클라인바움 | 서교출판사

전통을 중시하는 웰튼 아카데미에서 독창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영혼과 열정을 불어넣는다. '카르페 디엠(현재를 즐겨라)'의 정신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록 격려한다.



##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팀 페리스 | 토네이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법에 대한 통찰을 담은 책이다. 133명에 이르는 우리 시대 최고의 석학, CEO, 슈퍼리치, 투자자, 예술가, 지식인 등이 참여한 이 책은 우선순위를 지혜롭게 조정해 원하는 삶을 얻는 충격적이고 매력적인 이야기를 들려준다.

## 한 달에 한 가지, 지구 사랑 실천\_플로깅

새해에는 건강을 위해 걷거나 조깅을 계획하는 이들이 많다. 이때 환경까지 함께 챙겨보면 어떨까. 일명 '줍깅'으로 불리는 '플로깅'을 실천하는 것이다. 플로깅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페인어 플로카 업(plocka upp)과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걷거나 달리기를 하며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뜻한다. 쓰레기를 줍는 동작이 스쿼트나 런지 자세와 비슷해 조깅이나 산책만 하는 것보다 칼로리 소모도 많다. 쓰레기봉투, 장갑, 집게를 준비해 밖으로 나가보자.



## 독자퀴즈

### QUIZ

제대군인 취·창업의 동반자인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잘못된 것은?

- ①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 10곳이 있다.
- ②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제대군인들의 취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다.
- ③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에는 전국 유일 해외취업상담사가 있어 제대군인의 해외취업을 돕고 있다.
- ④ 천안, 구미, 고양 3개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제대군인상담사가 있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 상담을 하고 있다.

※ 2월 20일(목)까지 정답과 이름, 주소, 연락처를 리:스펙 제대군인 담당자 이메일(seung29@korea.kr)로 보내 주시거나 웹진(http://vnet-magazine.kr)에서 직접 참여해 주세요. (당첨 결과 문자 통지)

### 2025년 1월호 독자퀴즈 당첨자

김창현(경기 남양주), 신동호(충남 부여)  
위인정(서울 노원), 임성호(부산 북구)  
홍을희(경기 파주)

※ 당첨되신 분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3만 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 1월호 정답: ④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지원은 국가보훈부 단독으로 이뤄진다.

# 2025년 2월 이달의 6.25 전쟁영웅

미군 제8240부대 유격대  
1951. 7.~1953. 8.



## 군번도 계급도 없이 조국을 지켜낸 위대한 이름을 잊지 않습니다!

1951년 1월 미 제8군사령부는 적 지역에 유격전을 전개할 목적으로 유격군사령부 윌리엄 에이블기지를 창설하였다. 미 극동군사령부 정보참모부는 이들에게 보급과 훈련을 지원했으며, 1951년 7월에는 '제8240부대'로 명명하여 본격적인 작전에 나섰다. 미군, 국군 장교 그리고 한국인 지원자들로 이루어진 유격대는 북한 후방에서 포로획득, 보급로 파괴 등 4천여 회의 작전을 수행했다. 정전협정체결 이후 국방부 제8250부대로 재편 후 육군에 편입되었다.

### 미군 제8240부대 유격대 발자취

- 1951년 7월 유격대를 조직하여 '미 극동군사령부 제8240부대' 창설
- 1952년 11월 '국제연합유격군(UNPFK)'으로 개칭
- 1953년 8월 '국방부 제8250부대'로 재편



\*이미지 출처: 전쟁기념사업회(타이거여단 장교 교육 제1기 기념, 1952.6.20.)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